



즉시 배포용: 2019년 9월 1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트럼프 행정부의 청정 공기법 유예폐지에 관한 **CUOMO** 주지사, **INSLEE** 주지사 및 **NEWSOM** 주지사 성명

주정부, 자동차 오염으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청정 공기법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지킬 것 약속

미국 기후 동맹 공동 의장, 행정부의 주 권리에 대한 공격에 대응

미국 기후 동맹(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의 공동 의장인 Andrew Cuomo 주지사(뉴욕), Jay Inslee 주지사(워싱턴), Gavin Newsom 주지사(캘리포니아)는 주정부에서 더 엄격한 탄소 배출 기준을 세우도록 하는 유예를 폐지하려는 행정부의 마지막 명령에 대응하여 다음의 성명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7월 9일, 미국 기후 동맹 회원들은 "국가의 청정 자동차 약속(Nation's Clean Car Promise)"을 통해 강력한 국가 표준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발표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헌신하는 25명의 주지사 양당 연합체인 미국 기후 동맹의 공동 의장으로서,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정 공기법 아래 40년간 보유한 우리 권리를 정부가 철회 시도하려는 오늘의 발표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유해한 오염으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자유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조치는 국내 최고의 기후 및 청정 공기 프로그램 중 하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경 및 건강을 위협합니다. 이는 대기 오염을 증가시키고, 우리 주민들은 펌프에 더 많은 비용을 들이며, 동맹 주정부의 자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중요한 기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깨끗한 자동차의 경제적, 환경 및 공중 보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비동맹 주정부와 자동차 제조업체, 보건 공동체 및 기타 사람들에게 우리와 협력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